

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. 가장 신성한 날로 여기던 음 키푸르(대축제일, 속죄의 날, 단식하며 회당에서 종일 참회 기도를 하던 날)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이름은 ‘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거룩한 이름’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이름을 ‘아도나이’(주님) 혹은 ‘하셈’(그 이름)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.

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지배권이 있음을 뜻합니다.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들을 짓게 하셨습니다(창 2:19-20). 이는 그에 대한 권리를 아담에게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. “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”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배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. 금령으로 못 박은 것은 이러한 가능성 자체를 애초에 차단하려는 단호한 의지로 읽힙니다. 제3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,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,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.

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. 여호와 이레(창 22:14), 여호와 라파(출 15:26), 여호와 낫시(출 17:15), 여호와 삼마(겔 48:35),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놀라운 성품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. “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…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”(시 61:5, 8).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주의 ‘이름’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도 “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”(요 10:25)이라고 말씀하셨고, 제자들도 “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”(행 3:6)고 선포했습니다.

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
성품과 능력을 깨닫습니까?

- ①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들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겼습니까?
- ②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묵상해 보십시오.